

## DREAMROOM

원성원

8 평방미터의 아주 작은 기숙사방에 살때 나는 늘 넓고 벽없는 방을 꿈꾸며 살았다.  
어느날 친구들과 이야기중 그들도 나와 같이 방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는걸 알았다.  
(그들방은 나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소원에 방을 묻기  
시작했고 그들이 동경하는 장소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된 Dreamroom은 나를 포함해 12명의 소원의 방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의 소원은 그들 각자의 개성을 정확히 표현해준다.  
타이완에서 온 추순은 늘 친구의 얼굴에 동물몸을 그려넣는 장난을 좋아했고(동물원)  
스위스의 티나는 아무 가구도 없는 자신에 방을 늘 썰렁한 높에 비교한곤 했다.(높)  
브라질에서 온 일리아나와 파비앙은 원주민들의 악기를 두드리며 와일드한 대자연속에서  
원시인처럼 살길 바랬다.  
그리고 파비앙은 지금 진짜 호주의 대자연속으로 갔다.(암벽과 폭포)  
독일출신 요력은 너무나 깔끔한 자신의 결벽증을 한번 다 휩쓸고 싶어했다.(바다에 잠김)

그리고 나는 독일의 추운 날씨에 질려 열대 우림의 더위속에 휘말려 지쳐보고 싶었고, (열대우림)  
배경은 수영을 하지못하지만 물속을 동경했다.(바닷속)

나와 나의 절친한 친구들의 Dreamroom은 우리들의 현실과 동경을 동시에 보여준다.  
벽안에 갇힌 현실세계에선 그들의 현재 실생활, 어떤 취향의 사람인가를 엿볼수 있다.  
열려진 동경의 세계에선 그들의 미래, 그들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를 감지할수 있다.  
각각의 주인공들은 이 두가지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익살을 사진안에서  
펼친다.  
나는 그들의 동경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그것들을 시간들여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으로 이런 모든 공간들을 상상가능하게 만들면서  
"세계최상"을 연출한 자신들만의 비전과 그 방 주인공들 뒤에 존재하는 그들의 소원과 목표와  
동경의 세계를  
새롭게 만난다.

Dreamroom은 현실과 픽션사이의 원근법적 오류를 알아챌수 없을만큼 완벽한 테크닉적  
구조를 갖고 있다.  
나에게 있어 컴퓨터의 마우스는 붓과 같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나는 마우스로 정성스럽게  
친구들의 소원의  
방을 그리는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Dreamroom들은 각각의 실제에 방에 걸려 그 주인공들의 유토피아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